Anton Bruckner: *Mass No. 1 in D minor, WAB 26*

- **:** Anton Bruckner (1824–1896)
- **:** *Mass No. 1 in D minor, WAB 26*
- **:** · ,
- **:** 1864
- **:** 1864 11 20 , Linz Cathedral, Anton Bruckner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Mass_No.*1*(Bruckner)

Anton Bruckner *Mass No. 1 in D minor* Kyrie·Gloria·Credo·Sanctus·Benedictus·Agnus Dei 45 . · ·· , , , D Gloria Credo D , Benedictus Agnus Dei .

Bruckner 1864 Linz . Otto Kitzler , 1863 Kitzler Wagner *Tannhäuser* . Carus .

1864 11 20 Linz Cathedral , Bruckner . 12 18 Linz Redoutensaal , Credo .

1864년 자필 악보 뒤에 1876년과 1881–1882년의 개정이 이어졌다. 1892년 Innsbruck의 Johann Gross가 총보와 Ferdinand Löwe의 피아노 축약을 출판했고, 이후 Nowak의 Neue Gesamtausgabe와 Knud Breyer 가 편집한 Carus 비평판이 서로 다른 자료를 대조해 현재의 연주 전승을 정리했다. 초판, 개정 자필, Redoutensaal용 목관 대체안은 같은 판본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Carus판은 관련 자필과 초판을 비평적으로 검토한 본문과 비평 보고서를 제공한다. IMSLP에서는 1864년 자필, 1876·1881–1882년 개정, 1892년 초판과 Nowak 판본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소요 시간

전곡은 보통 약 45–50분이다. Matthew Best의 Hyperion 녹음은 여섯 악장을 약 44분에 담았고, Jochum과 Gardiner의 녹음은 템포와 합창 규모에 따라 조금 더 긴 시간을 사용한다.

편성

독창: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합창: 혼성 4성부 (SATB)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타악기: 팀파니
건반: 오르간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관현악은 합창을 받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악의 반음계와 하행 음계가 전례문의 정서를 이어 주고, 금관과 팀파니가 Gloria와 Credo의 공적인 환호를 확장한다. 오르간은 전례적 공간을 표시하면서 Credo 중간에 짧은 독립 간주를 맡는다. Redoutensaal을 위한 목관 대체안은 이 간주가 공연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전례문별 구성

I. Kyrie

현악의 부드러운 반음계가 D단조의 페달 위에 놓이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탄원을 시작한다. 첫
합창은 조용한 움직임에서 점차 넓어지고, 두 번째 Kyrie 에서는 힘찬 옥타브가 등장해 탄원의 강도를 높인다. 상승 음계는 뒤의 Gloria·Sanctus·Benedictus·Agnus Dei에도 모습을 바꿔 돌아온다.

II. Gloria

Gloria는 D장조의 밝은 조성으로 전환한다. 당시 가톨릭 전례에서 사제가 말하거나 평성가로 부르던 첫 억양이 합창과 관현악의 큰 찬양으로 이어진다. 중간의 miserere nobis 에서는 조성이 잠시 어두워지고 , 마지막
Amen 은 긴 푸가로 텍스트를 대위적으로 모은다. 이 푸가는 단순한 장식적 결말이 아니라 Gloria의 여러
문장을 하나의 확신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다.

III. Credo

Credo는 여섯 악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가진다. D장조의 합창이 신앙고백을 밀어붙인 뒤, Et incarnatus est 에서 네 독창 성부가 모방적으로 얽힌다. 이어지는 관현악과 오르간의 간주가 Et resurrexit 를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선율이 나타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을 향해 나아간다.

1864년 12월 Redoutensaal에서는 오르간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간주가 목관으로 대체되었다 . 오늘날 연주자가 어떤 판본을 택하는지는 오르간 파트와 목관 대안의 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할 일이며, 하나의
대체안을 작품 전체의 고정 편성으로 만들 수는 없다.

IV. Sanctus

Sanctus는 앞의 두 대규모 악장보다 짧지만, 음계와 옥타브를 압축해 전곡의 재료를 다시 들려준다. 마지막 Hosanna 는 다음 Benedictus의 끝에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두 전례문은 서로 다른 번호이면서도 하나의
환호를 공유한다.

V. Benedictus

Benedictus는 G장조에서 시작하지만 화성이 C♯까지 이동하며 안정된 조성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독창과 합창의 서정적인 선율이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관현악은 Kyrie와 Gloria에서 들은 음계적 움직임을
부드럽게 변형한다. 끝의 Hosanna 가 Sanctus의 환호를 되돌리면서 이 악장은 앞선 짧은 합창과 연결된다.

VI. Agnus Dei

Agnus Dei는 현악의 하행 음계와 첫 Kyrie를 떠올리게 하는 탄원으로 시작한다. 마지막 Dona nobis pacem 에서는 Credo와 Gloria에 등장한 재료가 다시 돌아와, 평화의 간구를 전곡의 종결로 만든다. Bruckner는 새 주제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이미 들은 음형을 되돌려 미사의 전례 순서를 하나의 큰 호흡으로 묶는다.

전례와 교향곡적 호흡

이 미사의 교향곡적 면모는 전례문을 교향곡의 악장으로 바꾸었다는 뜻이 아니다. Kyrie의 탄원과 Gloria의 찬양, Credo의 신앙고백, Sanctus와 Benedictus의 환호, Agnus Dei의 평화 기원이 각각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 음계 ·옥타브 ·조성 ·주제의 회귀가 악장 사이를 연결한다는 의미다. Carus와 Hyperion의 해설은 Bruckner가 이후 교향곡에서 확장할 시간 감각이 이 작품의 합창과 관현악에서 먼저 분명해진다고 본다.

Gloria와 Credo는 D장조로 공적인 확신을 세우고, Benedictus는 먼 조성으로 이동해 더 개인적인 기도의 결을 만든다. 마지막 Agnus Dei가 첫 Kyrie의 어두운 움직임을 되돌리는 순간, 전곡은 처음의 탄원과 끝의 평화 사이에 놓인다. 이 흐름을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요약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례문과 조성 회귀에서 도출한 해석이며 작품의 장르 명칭을 대신하지 않는다.

판본과 공연 조건

1864년 초연판, 1876년 개정, 1881–1882년 개정은 아티큘레이션과 다이내믹 표기, 일부 성부 배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1892년 Gross 초판을 바탕으로 한 합창 전사와 Nowak·Carus 판본도 같은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Gloria의 miserere nobis 를 독창 베이스가 부르는지 합창이 부르는지처럼 짧은 부분도 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합창과 관현악의 균형은 연주 장소와 녹음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성당의 긴 잔향은 금관과 팀파니를 크게 들려주는 대신 Credo의 독창 모방과 목관의 연결을 흐릴 수 있고, 작은 합창과 가까운 마이크는 텍스트를 분명하게 하는 대신 교향적인 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작품의 악보 자체가 아니라 특정 공연 조건의 결과로 구분해야 한다.

주요 레코딩

Eugen Jochum / Chor und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DG, 1972): Elmar Schloter가 오르간을 맡은 녹음으로, Credo의 오르간 간주를 포함한다. Gramophone은 Jochum의 넓은 호흡과 강한 리듬이 Agnus Dei의 회고적 종결을 크게 부각한다고
비교했으며 , 이 음반은 오르간 버전의 역사적 전승을 들려주는 사례다.
Matthew Best / Corydon Singers and Orchestra (Hyperion CDA66650, 1993): 여섯
악장을 약 44분에 담은 전곡 녹음이다. Hyperion은 Kyrie의 반음계, Gloria와 Credo의 구조, Benedictus의 조성 이동을 악장별로 설명하며, Best의 음반은 비교적 작은 앙상블과 선명한 독창을 들을 수 있는 선택지다.
John Eliot Gardiner / Monteverdi Choir·Wiener Philharmoniker (DG 459674-2, 1996): Vienna Musikverein에서 녹음한 판본이다. Gramophone은 빠른 템포와 엄격한 리듬, 텍스처의 선명함을 이 연주의 특징으로 들고, Credo에서는 합창과 관현악의 강한 추진을 높이 평가했다. Jochum의 넓은 호흡과 대비해 들으면 같은 미사의 시간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드러난다.

주요 자료

IMSLP, Mass No. 1 in D minor, WAB 26: 자필 ·개정 ·초판 ·판본과 여섯 전례문.

Carus, Mass in D minor: Knud Breyer 비평판, 작곡 배경, 초연과 판본 설명.

Hyperion, Mass No. 1 in D minor: Wadham Sutton의 악장별 해설, 초연 ·재연, Matthew Best 녹음과 시간.

CPDL, Mass No. 1 in D minor: 1876년 Gross판을 바탕으로 한 합창 전사와 편성.

Bruckner 디스코그래피 , WAB 26: 판본 ·오르간 대안 ·주요 녹음 비교.

Gramophone, Bruckner Mass in D minor & Motets: Jochum·Best·Gardiner 녹음의 연주와 음향 비교.

Presto Music, Gardiner DG 459674-2: Gardiner 녹음의 참여 성악진 ·악단 ·녹음 장소.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22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5:22 UTC by 안준영